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129호 발행일 : 2005년 5월 29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4부예배 “오늘” 오후 2시, 새롭게 시작해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시간 되고자



오늘 오후 2시부터 매주일 대예배실에서는 4부 예배를 시작한다. 4부 예배는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들을 위한 예배라는 점에서 기존의 1, 2, 3부 예배와 구별된다. 기존의 예배는 이미 믿고 있는 교우들에게 익숙한 예배다. 반면에 4부 예배는 신앙이 없거나, 그동안 교회와 멀리 떨어져 살던 분들을 위하여, 문화적 도구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복음 전도에

집중한 예배다. 따라서 4부 예배는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들의 눈높이에서 예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편안하면서도 쉽게 복음을 전하는 예배이다.

4부 예배는 영혼 구원과 복음전도에 전념하는 예배이다. 따라서 4부 예배는 복음을 전할 방편으로 테마가 있는 예배를 드린다. 4부 예배에서 준비한 10회까지의 주제를 살펴보면 “지금 행복하십니까?” (5월 29일),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요?” (6월

5일),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요?” (6월 12일),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지요?” (6월 19일), “내가 하나님이 된다면?” (6월 26일), “하나님은 돈을 싫어하나요?” (7월 3일), “꼭 함께 살아가야 하나요?” (7월 10일), “예수쟁이는 위선자일까요?” (7월 17일),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있나요?” (7월 24일),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7월 31일) 와 같다. (3면에 이어서)

‘결식아동 돕기’ 자선음악회



오는 6월 8일(수)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사랑과 나눔’의 자선음악회가 열린다.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이다. 성금은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입구에 비치된 성금함에 성도들이 돕고 싶은 만큼 자발적으로 넣어주면 된다.

이번에 모여진 성금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결식하는 학생들을 찾아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함께 참석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5월 나눔의 물품

지난 주일, 풍성히 수집돼



5월 나눔의 물품을 지난 주일(22일)에 교회 로비에서 받았다. 이번에는 전날 전교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소식을 알려서인지 기록적인 45박스가 수집되어 지하실에서 남자용, 여자용, 아동용으로 분류하던 김화진 원로 권사님과 5명의 교회 사무국 집사들이 다 같이 거들어도 일을 다 마치지 못할 정도였다. 이번 달 나눔의 물품은 전북 완주군에서 200여명의 장애우들이 모여 사는 작은 샘골 공동체, 충북 청주에서 80여명의 무의탁 아동들이 수용되어 있는 충북 육아원, 경북 영천 소재 다니엘 기도원, 안산의 반석 사랑의 집, 안양 평강의 집등에 즉시로 배달되었다. 많은 물품으로 정성껏 성원해 준 교우들에게 각 시설의 형제 자매들을 대신하여 복지 선교부에서 감사 드린다.

5월 정기당회 보고

2005년 임직자선거 세부안 확정해

5월 당회가 17일(화) 저녁 6시에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사무국보고에서는 1층 유아부실 독립냉난방 시설설치, 강당 전면 프라자 어닝 2개 설치와 강당 난방시스템을 냉방으로 전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강당 냉난방시스템은 전환할 때마다 2주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담임목사의 영국집회 일정(6.6-10), 교구수련회 일정보고도 있었다.

전도예배사역팀에서는 5월29일부터 전도예배를 시작하여 매주일 오후2시에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를 드린다. 그에 따른 홍보 일정, 매주일 예배주제를 정하고 진행한다.

해외선교위원회에서는 올 여름 중국단기선교 계획과 몽골 단기선교계획을 보고하며, 단기선교의 소요경비는 원칙상 자비부담임을 밝혔다. 행정장정

개정 소위원회 1차회의에서는 행정장정 전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식, 교회장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의 진행결과를 보고하고 추후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도 임직자피택을 위한 선거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장로 5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10명을 피택하며, 후보자 공천은 당회원 전원이 3배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천하고, 임시당회에서 2배수로 득표순으로 공천하기로 하였다. 후보자 공고는 6월26일 후보와 함즐함울을 통해 기재될 예정이며, 1차선거는 7월3일 1부예배후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시작되며, 3차투표까지 계획하고, 득표수는 기재하지 않고, 결과발표에서 득표수는 기재하지 않기로 하였다.

1교구 윤지언 어린이의 소아암 치료를 위한 지원요청을 허락하고 1,000만원 요청금액을 단계별로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말씀서예반 소개

서예가 박재현 집사가 진행하는 말씀 서예반은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있다. 15명의 수강생들이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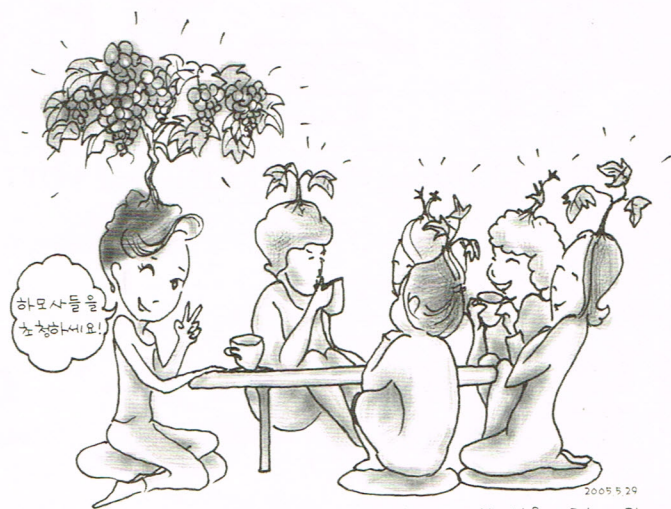
박재현 집사의 간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첫 걸음을 시작했다. 시간마다 말씀 속에서 새롭고 은혜롭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얀 백지를 접으면서 일곱개의 십자가를 보며 일곱번씩 일흔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물방울을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땀과 눈물과 피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고,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먹을 갈 때에는 내 마음 발을 가는 시간이며 하얀

붓털을 먹물에 담글 때 아담의 원죄에 새까맣게 물든 우리 인간의 죄를 묵상하게 된다. 하나님은 성경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쓰고 계신다. 말씀을 쓰는 그 시간은 오직 말씀만 생각한다. 알기 쉽게 집약적으로 한 가지씩 기술을 익힐 때마다 베푸는 성취의 기쁨을 맛본다.



오늘 기도



2005.5.29
하모사 =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열매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특별 목요모임

행함이 먼저일 때, 사랑의 마음은 뒤따라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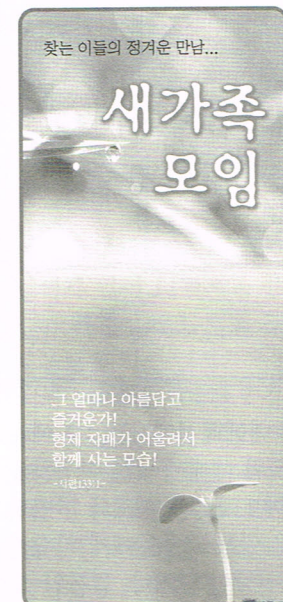
가정상담연구소장 추부길 목사

지난 주 목요모임(26일)은 가정상담연구소장 추부길 목사가 특별목요모임 마지막 시간 말씀을 전했다. 요한일서 4장 7~8절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통 '사랑이 사람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결혼생활 중 상대방에게 안 좋은 점이 보이는 것은 사랑이 비기 시작할 때이다. 사랑이 텅텅 비었으니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기대 대로 상대방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에게서 그 사랑을 받으려 한다.

사람에게 받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 사단은 부부간의 금을 깨고 오해하며 싸우게 만든다.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지만 사단도 24시간 우리 주변에 있다. 죄는 미워하더라도 남편을, 아내를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기도해야 한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남편이 미워 보일 때 사랑은 '순종'이다.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세가지가 있다. 바로 '사랑, 감사, 용서'이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표정을 풀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사랑해라고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순수한 사랑이 찾아온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다. 가정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은 '치유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자체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 때 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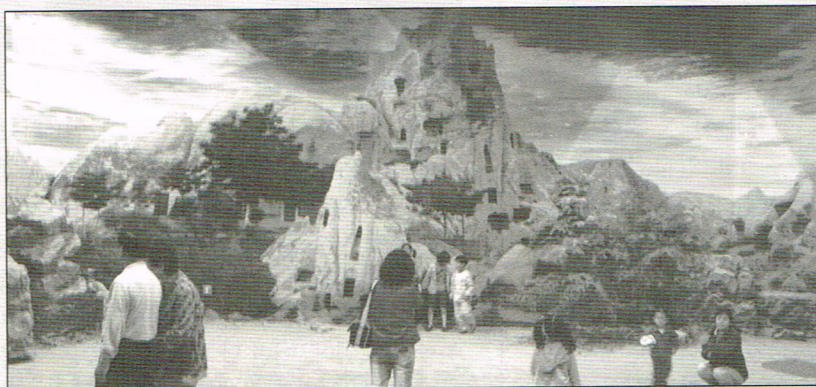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게

새가족환영의 날 행사



어제(2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소년부실에서는 5월 새가족환영의 날 행사가 있었다. 새가족 참석인원은 30여명이었고 교구별로 도우미와 담당 교역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신영숙 집사의 환영 인사와 3-2구역의 공동체 찬양, 최남영 성도의 해금 연주에 이어 새가족 김기창 성도(7교구)의 간증이 있었다. 6월 새가족환영의 날 행사는 25일로 예정하고 있다.

"나의 성지를 찾아서" 양육 클래스 소개 대공원에서 성서를 몸으로 체험해



양육클래스 나의 성지를 찾아서는 2006년 1월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하며, 이창현 목사의 인도로 성서의 역사와 지리를 공부하고 있다. 지난 5월20일 능동 어린이대공원 구

야외수영장 자리에서 열리고 있는 성서체험전을 방문하였다. 'LET'S BIBLE-성서체험전'은 첨단 장비와 특수효과를 사용하여 성경역사를 연대기순으로 재현한 세계최초,

유일의 테마파크형으로 전시하고 있으며, 반응이 좋아 원래의 계획보다 연장하여 5월말까지 개장하고 있다. 그동안 초동부실에서 책상에서 공부하던 교우들이 어린이대공원의 화사한 꽃을 보자 너무도 좋아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속에서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였다. 1인당 15000원의 싸지않은 입장료를 낸후 순서를 기다려 입장하였다. 캄캄한 방으로 들어서자 뒷문이 닫혔다. 너무도 어두워서 옆사람조차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암흑을 지난후, 천지창조의 빛을 체험하고 에덴동산 가운데 서있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할

때에는 너무도 신기하기조차 하였다. 이렇게 하여 연대기 순으로 나눈 7개의 주제관, 즉 천지창조, 믿음의 조상, 출애굽, 약속의 땅, 왕정시대, 암흑의 터널, 구원의 빛을 순서대로 관람하며 방대한 양의 성서를 약 70여분 동안 첨단기법으로 체험하였다. 성경책으로만 읽던것을 모형이긴 하지만 직접 체험한 것이 너무도 좋았고,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을 짧게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체험전을 마치고 나오니 연장개장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잘 만든 성서체험 모형들을 연장하여 개장한다면 더 많은 성도들이 보고 감동을 받을 것이기에, 모두들 기쁘게 서명하였다. 성서체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나의 성지를 생각해보며, 1시간이나마 성지순례의 감격을 맛본 하루였다.

방과후학교

지난 5월 21일(토요일), 가출 및 비행 청소년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안양 청소년쉼터 For You'의 한관



희 목사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를 방문했다. 한관희 목사는 가정적, 사회적으로 이탈된 청소년과 교사간의 대화에 있어서 주의할 점, 어려운 점,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했고, 교사들은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으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을 의논하면서 방과후학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있을 경우, 안양청소년 쉼터의 조력을 받기로 했다.

세례 입교 교육 계속 진행중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초등부실에서 세례 입교 교육이 진행중에 있다. 세례 입교는 4주의 교육과 5주째 문답을 거쳐 그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지고 있다. 행정과 예식에 관한 제반 준비는 정희성 목사가 담당하는 세례 사역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번 세례 입교 교육은 박의일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두번의 교육을 가졌고, 이번 주일에는 세 번째 시간을 갖는다. 현재는 20여명이 신청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세례 입교 예식은 6월 15일(수)

7시 30분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 있을 예정이다.



중보기도사역팀 일일 MT 다녀와

5월19일(목) 오전 9시 30분에 설만한 물가에서 33명이 모여서 7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남이섬으로 떠났다.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1시간 50분 정도였다. 떠나기전에 일정을 위해 담당 교역자 정영환 목사의 기도가 있었다. 새움이 돋고 꽃들의 축제가 길가에 수놓았고 중보기도 사역자 일행은

정영환 목사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남이섬 중보기도 모임을 가졌다. 아름드리 나무들과 웅장처럼 말린 잔디위에 자리를 잡고 팀별로 싸운 도시락을 펼쳤다. 모처럼의 나들이였고 개개인이 한 시간씩 기도 하는것 외에 특별히 만나야 할 시간이 없었으나 일일 MT를 가지므로 좋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각양각색의 준비한 도시락은 성찬을 이루었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한 형

제 자매임을 인식하기도 했다. 점심 식사후 박선화 집사의 인도로 율동과 게임도 즐겁게 했다. 마치 어린아이인양 까르르 넘어가는 재미있음에 잊혀졌던 아늑한 저녁머의 추억을 그려보기도 했다. 3시까지 자유시간을 갖고 산책도 하며 담소도 나누고 배를 다시 타고 각자 출발하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활하심 가운데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즐거운 일일 MT가 진행되었다.

3여선교회 여름 산행

3여선교회에서는 18일(수) 교회에서 모여 가랑비 내리는데 미끄러지지 않게 등산 잘 다녀오라는 담당 교역자 홍민기 목사의 배움을 받으며 청계산으로 떠났다. 날씨가 조금 궂은 관계로 참석한 회원들은 모두 9명이였다.

구름안개가 내려와 회원들을 감싸 안은 듯한 옥녀봉 정상에서 이승숙 권사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다. 김선례 권사는 가정에서 어머니들의 중요함과, 가족에 충실할 것을 기도했으며, 회원들은 "나주의 믿음 갖고" 복음송으로 찬양하며,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연에 대한 감사함으로 행복한 산행을 마쳤다.

3여선교회는 27일(금) 마천동 결식아동 반찬 만들기를 김선례 권사와 함께했고, 6월 10일(금) 1시에는 서울의료원 원목실에 모여 전도지와 도서책을 환자들에게 보여주며 함께 기도하는 봉사를 이승숙 권사와 함께 하고자 한다. 봉사에 뜻이 있는 회원들은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다음월례회는 6월 15일(수)

교회에서 홍민기 목사 인도로 예배 드린후, 대학교미디 "웃찾사" 관람을 예정하고 있다.



PTP(학부모, 교사기도회) 스케줄

토요일 오전 10시에 PTP(학부모, 교사기도회)가 계속 열리고 있다. 특히 6월 11일과 18일에는 자녀교육 세미나로 모이게 되며 마지막예배는 온가족이 함께 하는 찬양예배로 드려지게 된다. 계속되는 홍민기 목사의 믿음의 열조들에게 배우는 자녀교육 강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며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안을 강력하게 제

시 하고 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PTP 스케줄

6월 4일 믿음의 열조들에게 배우는 자녀교육(11)

창세기 27:15-20 "야곱의 원함"

6월 11일 자녀교육세미나 I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

6월 18일 자녀교육세미나 II "바른 훈계가 있는 가정"

6월 25일 PTP 봄 학기 마지막예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찬양예배 말씀 : 믿음의 열조들에게 배우는 자녀교육(12) 창세기 32:24-30 "하나님과의 씨름"

(1면에 이어서)

4부예배 "오늘" 오후 2시, 새롭게 시작해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이 꼭 궁금하고, 한번쯤은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을 주제로 삼아 그 주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다.

우리 주위에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하여 호감은 가지고 있지만, 기존 교인들에게 맞춘 예배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적응하기 쉽지 않아 꾸준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성숙시키기는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 예배가 낯선 분들, 어릴 때 교회 다녀 봤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분들에게 초점을 맞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4부예배의 이름은 "오늘"이다.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오늘!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정하였다.

그 동안 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어, 데리고 나오지 못한 우리 주위의 이웃과 친구와 친지, 동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그 분들을 4부 예배에 모시고 오면 이 "오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4부 예배는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들을 위한 맞춤 예배로 예배를 통한 전도를 하려는 것이다.

첫 번째 예배에 특별히 과거 '긴 머리 소녀'와 '밤 배'라는 노래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둘다섯의 이두진 집사가 와서 특별 공연이 있고, 첫째 날 주제에 맞춘 '행복에 관한 몇 가지 소묘'라는 스킷 드라마를 하며, 지난 3월 전도 부흥회 때 은혜로운 찬양을 드린 바 있는 CCM 가수 장근희 씨의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4부 예배 "오늘"을 통하여 그동안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원했던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일이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앞으로 4부 예배 "오늘"에서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분은 4부 예배에 참석하여 4부예배 안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전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라며 기도로 후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지개 사진관 사진 전시해



작은 사진을 전시했다. 초록색 배경과 초록색 옷을 입고 찍은 초록 물결이 가득한 행복한 사진들이었다. 모두들 사진을 보면서 행복해했다. 축제때 이 코너를 위해 수고한 스태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지난 주일 교회 1층 로비에는 무지개 축제 때 '꿈과 이상을 보는 완두콩 Family'라는 테마로 열린 무지개 사진관에서

기도하는 어린 천사

지난 5월 23일 주일 썩트네 예배 설교는 “기도와 찬양”이 주제였다.

모세가 홍해 바다라는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기도로 난관을 극복하였고, 난관 극복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다. 썩트네 한 어린이가 설교 말씀을 들은 이틀 후, 집에서 아픈 동생을 위해 혼자 기도했다며 내일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동생을 다 낫게 해 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모습에 부모는 아이의 순수하며 착한 마음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것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평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에 의존했던 본인의 모습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이 부모는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썩트네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은 아이들의 가정에서 모습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설교 말씀 후 진행되는 5분간의

퀴즈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때마다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귀엽다고 이구동성으로 전한다.

자기 표현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손을 번쩍 들고 앞에 나와 답을 얘기할 때면 그 어느 영화보다도 깊은 감동을 전해준다고 한다.

썩트네는 5월 1일 어린이 주일에는 “내 집이 좋아”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내용의 비디오를 감상했으며, 5월 8일 아버지 주일에는 부모님께 드릴 엽서를 만들었다. 글씨를 모르는 영유아는 카드 앞면에 이쁜 입술을 립스틱으로 찍어서 보냈고, 유치부 아이들은 다양한 하트와 여러 가지 꽃 모양으로 엽서장식을 하고 “부모님 사랑해요”라고 직접 써서 부모님께 보내는 행사를 가졌다.

신부 대기실

아름답게 새 단장해

의 관심과 섬김의 봉사를 통해 아름답게 새 단장했다. 그 동안 신부 대기실 단장이 미

거의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교회에는 결혼식이 있다. 주로 중예배실을 결혼식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예배실에 있는 신부 대기실이 이번에 결혼예식팀 팀장인 한영미 권사와 팀원인 윤숙 집사, 현옥희 집사, 그 외에 김선녀 집사 등 많은 성도들

함하여 사용하는 혼주나 결혼예식팀의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단장하므로 사용하는 혼주들이 무척이나 만족해하고 있다. 결혼예식팀은 앞으로 더 많은 팀원들과 함께 기쁨과 감동이 있는 결혼예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비결

여호수아서를 통해 깊이있게 배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진 여호수아서 강해반은 지난 3월 31일 첫 모임을 가진 주 모임을 아홉 번의 모임을 가졌다. 인도하는 박의일 목사가 담당하며,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5층 찬양연습실이다.

현재 등록인원은 55명이며, 영적전쟁이라는 주제에 관해 참석한 성도들의 열의는 매우 뜨겁다.

강의 시작 30분전인 10시부터 이종은 권사의 크로마하프 반주에 의한 찬양인도와 기도로 강의를 준비한다. 특별히 지난주 강의는 영적 전쟁에 관한 주제중 중요한 부분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하여 두 주 연속으로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주 목요일(6월 2일)에는 또 하나의 뜨거운 영적 전쟁의 주제인 ‘축사와

사단의 정제’에 관하여 깊이있게 공부하게 된다.

참석한 성도들은 평소에 관심이 있던 영적 전쟁의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 미리 공지된 순서에 따라 한 주 한 주 깊이있게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 매우 관심있게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강의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평소에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주제인 영적 전쟁에 관하여 양육 클래스를 통하여 말씀속에서 깊이있게 배울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익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의는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데 전반부는 영적 전쟁의 특정 주제에 관하여 상고하고, 후반부는 여호수

아서를 순서에 따라 강해한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공부하기에는 갈수록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은 막지 못하고 있다.

이제 3월말에 시작한 양육 클래스도 어느덧 종강까지는 여섯번 정도의 시간밖에는 남지 않았다.

영적 전쟁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주제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대한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후 1시 이후에는 유소년축구클럽 관게로 이동주차하여 주십시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토요일은 어와나 끝나는 시간(5-6시)까지 개관합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 : [cafe.daum.net / PCLBOOKS](http://cafe.daum.net/PCLBOOKS)

4. 설만한 물가(1층) 이용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테이프,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